

R. W. Emerson의 散文에 나타난 Self-Reliance의 研究

韓 圭 萬

英語英文學科

(1981.12.30 접수)

〈要 約〉

R. W. Emerson은 19세기 美國作家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至大한 作家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New England Transcendentalism의 代辯人이었으며 그의 사상의 핵심은 Self-Reliance이다. 그는 當代의 물질주의와 점증하는 産業主義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人間은 神의 形像대로 창조되었음을 주장하였고 自身의 영혼속에 있는 神의 音聲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실한 인간이란 특히 學者는 Self-Reliance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Self-Reliance의 사상은 Emerson의 全思想의 기초개념이다. 各個人은 直觀을 통하여 神과 交通할 수 있으므로 결국 人間은 자신의 心性을 통하여 神性和 完全性を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個人은 社會와 단절되어 살아갈수는 없다. 個人의 社會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人間은 社會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된다. Emerson은 자신의 職分을 詩人으로 확신하였다. 詩人에게는 말한다는 사실이 하나의 行動이었다.

많은 비평가들은 Emerson의 활동시기를 前後期로 나누어 前期에는 社會와 國家, 그리고 教會를 부인하였고 後期에 와서는 거기에 順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그가 거부한 것은 社會 그 自體나 社會의 効用이 아니라, 社會의 古율적이고 형식적인 制度와 惡習이었다. 따라서 그가 後期에 와서 社會와 和解를 했거나 運命에 順應했다는 表現은 걸맞지 않다.

그는 眞理에 充實한 사람이었고 後期에는 새로운 人間像 즉 Man Thinking을 實踐해 본 것이다. 바로 그러한 人間만이 새로운 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個人은 활동의 主體이오, 社會는 그 活動무대임을 잘 알고 있었다. 個人과 社會의 두 요소는 동시에 兩立해야 하는 상호보완적인 요소인 것이다.

A Study of Self-Reliance in Ralph W. Emerson's Prose

Han Kyu Ma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December 30, 1981)

〈Abstract〉

Ralph Waldo Emerson has been widely regarded as the most famous and most influential of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writers. He was the spokesman of New England Transcendentalism. And the core of his thoughts is Self-Reliance. He condemned the materialism and the growing industrialism of his age. But he found it possible to compromise between ideal and reality.

He suggested that a man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should hear the voice of God in the soul. Consequently a true man, especially a Scholar, should have Self-Reliance, which is the main idea of Emerson's whole thoughts. Each individual can communicate with God through his own intuition, so it is possible to achieve divinity or perfection through his own mind.

But every individual cannot live alone without being concerned with society. As the social consciousness increases, each individual seeks to find his role in society. Emerson considered his vocation as Sayer, the poet. Saying words was a kind of action to him.

Most critics view that, in his earlier period of Emerson's writings, he rejected the society, the nation and the church. However, it is a superficial observation. It is the formal institutions in society or evil traditions of society that he rejected. Not the uses or good effects of society. And in his later period of writing he has been said to have reconciled himself with society or to yield to the fate. But in my opinion he never submitted to the fate, only faithful to the truth. He spent his later lifetime on showing how to be a new man, Man Thinking, who is able to establish a new society. He was never opposed to the society itself and never reconciled with it. He was always recognizing that they needed each other. Every individual is an actor and society is the stage on which the actor plays. The two factors are compatible at the same time.

I. 序 論

美國文學史에서 R.W. Emerson 만큼 論難도 많고 그 評價도 千差萬別인 作家도 드물다. 그를 美國文學의 아버지 또는 the Sage of Concord 라 하여 그를 추앙하는가 하면, 獨逸 Idealism 을 잘못 受用한 미숙한 작가라는 酷評도 받는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를 文學家로 평가하기를 꺼리고 오히려 哲學家 내지 思想家로 보려고하며, 文學家로 간주 하더라도 散文作家로서만 보려하지 詩人이나 批評家로 보려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作수의 美國詩人들 가운데 그를 스승으로 삼고 詩作活動을 하는 詩人이 많은 것을 보면 위와같은 평가는 修正될 餘地가 充分히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美國에서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Emerson 研究가 狂기를 띠고 있음과 아울러 그를 思想家, 宗教家 또는 哲學家로서 단정짓던 경향에서 벗어나, 詩人이며 批評家로서의 Emerson 을 평가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그런데 그는 참다운 人間이란 곧 學者요 詩人이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人間觀을 면밀히 검토하는 作業은 그의 詩와 詩論을 分析하는 작업과 同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論文에서 Self-Reliance 를 中心으로 그의 人間觀을 分析하려 한다.

Emerson 은 알려진 바와 같이 19세기 美國 New England 地方에서 일어났던 文藝運動인 Transcendentalism 의 代表者이다. 한편, 그의 모든 思想의 귀결점은 Individualism 또는 Self-Reliance 로 集約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人間觀을 밝히기 위해, Self-Reliance 를 中心으로 그의 주요 작품을 조사

분석하게 될 것이다. Emerson 을 代辯人으로하는 美國의 Transcendentalism 은 美國文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운동은 美國人の 意識構造와 社會制度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으며, 現代美國 낭만주의의 源流가 되고있다. 美國의 Transcendentalism 은 大西洋 건너에 있는 국가에서의 이 운동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프랑스와 독일의 Transcendentalism 운동은 大學을 中心으로 知識人만이 참여하였고, 英國에서의 이 운동은 詩와 藝術分野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으나 英國人들의 生活 깊숙히까지는 스며들지 않았음에 비해 美國에서는 활짝 開花하여 文學과 美術은 물론 그들의 意識構造 및 社會制度形成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운동은 個人의 尊貴함을 인식하여 拘束的 社會制度로부터 人間을 구하려는 人間性 回復運動이었고 主體性 回復運動이었다.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Emerson 은 文學的見地에서 보면, 當代의 文人들 특히 W. Whitman, Edgar A. Poe, N. Hawthorne, H. Melville 과 함께 American Symbolism 의 선구자이었으며, 哲學思潮에 있어서 美國特有의 Pragmatism 에도 至大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20세기 美國의 文學思潮인 anti-intellectualism, neo-romanticism, hyperromanticism 의 元祖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점에 대해 Rod Horton 과 Herbert Edwards 는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라는 其著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s indicated at the beginning of this section, the neoromanticism of the present generation of writers reflects (in understandable distorted form) the idealism, the individualism, and the antirationalism of

American Transcendentalism. The hyperromantics, from the beats to the hippies have emphasized particularly the Emersonian belief that every individual has available to him a cosmic source of inexhaustible creative power, if he can only find the way to tap into its riches. In his essay "The Poet" Emerson had stated that the true poet does not need the artificial stimulus of drugs but will find his own way to make himself the channel of the cosmic forces.¹

한편, 20세기 비평가인 August Derleth는 Emerson을 詩史的 見地에서 고찰하면서 Emerson은 傳統詩의 形式을 탈피하여 表現手段으로서의 象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 詩人이었다고 평가한다.

· but for all his study of classical models his poetry led away from traditional forms to verse that most of his contemporaries thought awkward, but which took root rather in the English metaphysical poets of the seventeenth century, and which, through its disregard for metrics and its vaunting of the symbol as an instrument of expression, led directly to modern poetry, from Hart Crane and T. S. Eliot to Wallace Stevens and e. e. cummings, for which Walt Whitman is commonly but mistakenly given credit.²

그의 現代詩人들에 대한 영향은 Robert Frost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分明하게 찾아볼 수 있겠다.

All that admiration for me I am glad of. I am here out of admiration for Emerson and Thoreau. Naturally on this proud occasion I should like to make myself as much of an Emersonian as I can. Let me see if I can't go a long way. You may be interested to know that I have right here in my pocket a little first edition of Emerson's poetry.³

이와 같이 美國文學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R. W. Emerson의 詩論을 밝히기 위해서 그의 人間觀을 分析하고자한다. 특히 그의 中心思想인 Self-Reliance의 形成과 發顯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자한다. 제2장에서는 Emerson이 말하는 Self의 特性和 함께 그 概念과약에 주력하겠으며 제3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Self를 간직한 사람은 다인 어떤 類型의 人間인가를 밝히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人間은 社會에 대해서는 어떠한 態度를 取하게 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II. Emerson의 Self에 대한 定義와 Self의 實存主義的 性向

1. Emerson의 Self에 대한 定義

Emerson의 모든 散文과 詩는 Self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의 産物이다. 그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哲學的인 概念들은 Self의 概念과 연관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Self의 개념에는 egotism의 要素는 없음을 그의 散文(Culture)에서 말하고 있다.

But worse than the harping on one string, nature has secured individualism by giving the private person a high conceit of his weight in the system. The pest of society is egotism. There are dull and bright, sacred and profane, coarse and fine egotists. It is a disease that like influenza falls on all constitutions. · · · Is egotism a metaphysical variety of this malady? The man runs round a ring formed by his own talent, falls into an admiration of it, and loses relation to the world.⁴

그는 이와같이 自己本位主義的인 egotism은 배격하였고 같은 글에서 계속하여 egotism은 解毒시켜야 할 좋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The antidotes against this organic egotism are the range and variety of attractions, as gained by acquaintance with the world, with men of merit, with classes of society, with travel, with eminent persons, and with the high resources of philosophy, art and religion: books, travel, society, solitude.⁵

이러한 egotism은 自然에 歸依함으로써만 解毒이 可能하다. 自然의 法則과 意味를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Standing on the bare ground, — my head bathed by the blithe air, and uplifted into infinite space, — all mean egotism vanishes.⁶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Emerson이 目標로 하는 Self란 人間內部的 本質的이고도 高次元的인 Soul을 지닌 存在라도 할 수 있다.

이 Self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New England 人의 意識구조 즉 淸敎主義의 人間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uritanism에 있어서는 人間이란 神의 創造物로서 動物的인 存在는 아니나 原罪로 인해 타락한 存在이다. 따라서 人間の 意志는 自由롭지 못하며 단지 神의 啓示를 통해서만 救援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즉 運命豫定에 의해 이미 救援의 可否가 決定되어 버린 存在이므로 人間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神을 讚美하며, 現世보다는 死後世界를 위해 예비하는 일 뿐이다. 따라서 社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受動的이고 順應的인 態度를 취하게 된다. 神이 인정한

권위 즉 國家와 敎育에 부조건 服從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無力하고 希望이 없던 人間像에 反叛을 일으킨 다음 Emerson 이었다. 그는 積極적이고 希望에 가득차 있으며 社會의 不條理를 改革하는 人間像을 지시하였다. 人間은 神의 形像대로 創造된 存在이므로 神이 지니는 特性을 그대로 傳受한다는 것이다. 神은 無限한 存在이므로 人間 또한 善하며, 神이 全知全能하므로 모든 人間 또한 全知全能해질 가능성이 있다. 人間은 自由意志를 가지므로 自身의 人生에 대해 責任을 지는 存在이다. 따라서 人間은 自身의 潛在能力을 開發하고 自己를 實現하는 存在이다. 自身의 目的 責任은 깨달은 인간이 지니는 社會에 대한 態度는 自己主張의이며, 實지적 個人主義의이다. 그러나 社會의 公共善을 否認하는 egotism의 ego가 야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이 Emerson은 회당도 없고 淸하기만 하다는 Puritanism의 人間像을 배격하고, 自身의 才能을 통하여 無限히 發展할 수 있는 尊貴한 人間像을 主張하였다. Emerson은 이러한 樂觀의인 人間像을 바탕으로 하여 美國의 토양에 알맞는 超越主義 思想과 새로운 文學의 表現技法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 Sacvan Bercovitch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He is the most influential thinker of the period and the crucial figure in the continuity of the culture. Through him the distinctively American modes of expression matured; his achievement lay in his compelling synthesis of abiding national them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his synthesis, I have said, pertains to the idea of the American self.⁹

2. Self의 實存主義의 性向

모든 文學思想은 前世代의 文學的 傳統에 대한 反發 또는 거기에의 順應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20세기 文學界를 한때 휩쓸었던 實存主義 역시 예외는 아닌 것이다. 實存主義가 유럽諸國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에 못지않게 美國에서도 그 세력을 떨쳤다. 어지거지 별다른 文學傳統이 없다고 믿어져온 美國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 것은 그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傳統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즉 Emerson을 中心으로 19세기에 전개되었던 Transcendentalism이 그것이다. Emerson은 實存主義가 제기한 문제들을 이미 한世紀 이전에 제기했다고 보여지며, 實存主義는 오히려

Emersonian Transcendentalism의 主要主張들을 再確認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R. Horton과 H. Edwards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existentialism nevertheless lies well within the romantic tradition in Western philosophical and literary thought. In its insistence upon the uniqueness and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the intellectual nature of knowledge, the insufficiency of science to explain the mystery of life, the necessity for rebellion against the tyranny of social conventions and political domination, the infinite potentiality of human existence, and the obligation of every individual to live up to the best that is in him, existentialism reaffirms many important tenets of Emersonian Transcendentalism.¹⁰

이들은 계속하여 實存主義와 超越主義의 類似點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Even in its vagueness as to specific personal or social goals toward which the individual should direct his efforts does existentialism resemble Transcendentalism...there is little attempt to formulate even a general ethics which might serve man as a guide to life. Indeed, both Transcendentalism and existentialism avoid prescribing any particular mode of living, saying rather, 'Do not follow me; follow yourself.'¹¹

여기에 나타난 것과같이 Emerson은 어떤 體系의인 論理定立보다는 個人的 重要性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實存主義의 主要概念으로 인식되어온 Here & Now의 原理가 Emerson의 散文속에 어떻게 나타나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Emerson이 말하는 Self의 實存主義의 性向을 論證하고자한다. Self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쓰여진 그의 前期散文인 〈Self-Reliance〉를 살펴보면 그가 Now를 얼마나 중요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Speak what you think now in hard words, and tomorrow speak what tomorrow thinks in hard words again, though it contradict everything you said today.¹²

우리에게는 오늘날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Emerson은 우리에게 過去에 집착하지 말 것, 특히 과거의 思想을 克服할 것을 권유한다. 한편 그가 Here를 강조한 사실은 〈American Scholar〉 演설에 흐르는 論旨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는 美國 知識人들에게 유럽식 사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自然에 새로운 思想을 꽃피울 것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시 유행했던 知識을 얻기 위한 유럽 여행을 비판하였다.

Travelling is a fool's paradise. But the rage of

travelling is a symptom of a deeper unsoundness affecting the whole intellectual action.¹¹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前期敍文과 後期敍文에서 그 例를 찾아보겠다. 우선 前期敍文의 하나인 <History>를 보면, 實存主義에서 강조하는 Here & Now의 개념이 분명하게 表出되어 있다. 그는 歷史를 읽는 자답은 과거의 기록인 冊을 註釋으로 생각하고, 現在 살고있는 곳에서의 人生을 處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The student is to read history actively and not passively; to esteem his own life the text, and books the commentary. I have no expectation that anyman will read history aright who thinks that what was done in a remote age, by men whose names have resounded far, has any deeper sense than what he is doing today.¹²

계속해서 그는 歷史를 연구하는 것, 또는 일체의 古典研究의 목적은 그에 그곳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現在, 여기에 사는 人間을 위한 것이나라고 주장하였다.

All inquiry into antiquity is the desire to do away this wild, savage, and preposterous There or Then, and introduce in its place the Here and the Now. they [temples and sphinxes and catacombs] live again to the mind, or are now.¹³

따라서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깨달게 되면 古代 國家나 그 遺跡도 우리가 사는 여기에 現在化시킬 수 있음을 말하였다.

He finds Assyria and the Mounds of Cholula at his door, and himself has laid the courses.¹⁴

다음으로 그의 後期敍文 중에서 잘 알려진 <Experience>를 分析하고자한다. 或者是 Emerson의 思想이 前期와 後期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말하나, Here & Now를 강조하는 입장은 오히려 強化되며 具體化되고 있다 하겠다.

Since our office is with moments, let us husband them. Five minutes of today are worth as much to me as five minutes in the next millenium. Let us be poised, and our own, today. the only ballast I know is a respect to the present hour.¹⁵

이외같은 Emerson의 Here & Now의 강조에 대해 John Dewey가 다음과 같이 論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They [Emerson's ideas] are versions of the Here and Now, and flow freely. When Emerson, speaking

of the chronology of history, designated There and Then as 'wild, savage and preposterous'.¹⁶

Emerson은 Self의 無限한 潛在能力과 神性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Self가 Here & Now에 確信을 갖고 生活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Self-Reliance를 가지게된 人間의 神과 人間사이를 가리는 簾은 簾을 부인하게 되며, 國家의 元目的에 위배되는 國家에 대한과거 蔑視와 規律만이 殘在하여 人間을 구속하는 社會에 反抗하게 되는 것이다.

Ⅲ. Self-Reliance와 Scholar와의 關係

우리는 일 표에서 Emerson의 人間觀을 읽기 위하여 Self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가 말하는 Self는 神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高次的인 存在이었다. 그는 歷史의 傳統, 國家의 社會 또는 教會, 심지어는 神마저도 現世의 人間에게 공헌하고 봉사할 때만 價値있는 存在로 본 철두철미한 人本主義者이었다. 그러면 이 후에서는 그러한 Self가 가지는 Self-Reliance는 얼마나 중요한 德目이며 이 德目을 가지는 代表的 人間은 어떤 人間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作業은 다음章에서 논의될 Self와 Society와의 關係를 분석하는데 그 기초가 될 것이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Self의 神性を 믿었는가 하는 것은 <Self-Reliance>라는 敍文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글의 첫머리 epigraph는 'Epilogue To Beaumont And Fletcher's Honest Man's Fortune'인데, 人間이 宇宙의 中心이며 完수한 人間만이 萬事를 올바르게 行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 te quaesiveris extra."

"Man is his own star: and the soul that can
Render an honest and a perfect man
Commands all light, all influence, all fate;
Nothing to him falls early or too late.
Our acts our angels arc, or good or ill,
Our fatal shadows that walk by us still."¹⁷

드른 행동의 근원은 Self-Reliance를 갖는데 있으며, 보편적 자기신뢰가 놓여지는 것은 原初의이고 高次的인 the aboriginal Self인 것이다.

그는 後期에도 Self-Reliance(또는 Self-trust로 표현되고 있다.)야말로 새로운 生을 창조하고 人間답게 나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하며 唯一無二한 德目으로 생각하고 있다.

That need makes in morals the capital virtue of

self-trust. We must hold hard to this poverty, however scandalous, and by more vigorous self-recoveries, after the sallies of action, possess our axis more firmly.¹⁸

그러하여, 人間이 Self-Reliance 를 가졌을 때 個人的인 次元에서는 偉人이 되며, 社會的인 次元에서는 革命을 이기시킨다는 것이다.

It is easy to see that a greater self-reliance must work a revolution in all the offices and relations of men; in their religion; in their education; in their pursuits; their modes of living; their association; in their property; in their speculative views.¹⁹

이렇게 社會에게 革命을 일으키는 徳目을 가져다 할 代表的인 人間型은 누구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Emerson 은 <American Scholar>의 결론부에서 學者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Self-Reliance 인을 강조하고 있다.

He takes the cross of making his own, and, of course, the self-accusation, the faint heart, the frequent uncertainty and of time which are the nettles and tangling vines in the way of the self-relying and self-directed;²⁰

이러한 Self-Reliance 를 가지던면 우선 모든 拘束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自由라는 개념에조차도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孤獨感은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Free should the scholar be, —free and brave. Free even to the definition of freedom, ‘without any hindrance that does not arise out of his own constitution.’²¹

완전한 自由人인 學者는 Man Thinking 으로 간주되는데, 결국 學者是 생각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學者의 개념은 詩人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學者가 Man Thinking 이라면 詩人은 Man Speaking 이 되기 때문이다.

Ⅶ. 社會에 대한 Self 의 態度

1. 召命意識의 問題

Ⅲ章에서 내린 결론은 Self-Reliance 를 갖는 代表的 人間이 學者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學者는 社會의 한 구성원으로서 自身の 위치를 갖게 되는데, 社會에서의 學者의 機能은 무엇이며, 社會를 대하는 態度가 문제시된다. Ⅱ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個人은 Here & Now 를 깊이 인식하는 實存主義의 性向을 가지므로, 現實社會를 떠나서는 學者 또는 Self 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Emerson 을 無政府主義者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는 인간이 社會조직가운데에서 自身の 職業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自身の 才能이자 神의 召命이라는 것이다. <Spiritual Laws>라는 散文에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Each man has his vocation. The talent is the call. This talent and this call depend on his organization, or the mode in which the General Soul incarnates itself in him. He inclines to something which is easy to him and good when it is done, but which no other man can do. Everyman has this call of the Power to do somewhat Unique, and no man has any other call.²²

이러한 職業의식은 當代의 New England 人의 종교적 진념의 表出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Calvinism 에서 얘기하는 召命意識이 그것이다.

그러면 Emerson 은 자기 자신의 社會에의 부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There was no institutionalized outlet for the ambitions of the Transcendentalists, no socially recognized name for what they wanted to do. They were going through the most severe crisis of identity (‘vocation’ was their word for it.) that New England has seen.²³

그러나 Emerson 은 自然이라는 對象物과 人間內部의 靈魂사이의 調和를 認知한 詩인이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Emerson considered himself a poet, in the sense of a perceiver and dear lover of the harmonies that are in the soul and in the matter, and specially of the correspondences between these and those.²⁴

2. 人間을 拘束하는 社會에 反抗

Self-Reliance 를 갖는 Scholar 는 이제 社會에 대하여 行動을 取하게 된다. 그는 당시의 社會를 “手足이 胴體로부터 절단되어 있는,” 즉 한 個人個人이 全體적으로 調和되지 못한 不完全한 社會로 보았다. 또한 社會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한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學者는 Self-Reliance 를 가지기 때문에 他人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過去の 慣習에 拘束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Our arts, our occupations, our marriages, our religion, we have not chosen, but society has chosen for us.²⁵

Emerson 이 말하는 社會란 分野別로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宗教的으로는 教會요, 社會的으로는 社會組織과 慣習의 規律이요 政治的으로는 政府 내지는 國家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은 간파한 Emerson 은 이의 匡正을 요구하였다. 첫째, 教會는 本然의 任務가 神에 좀더 가까이 人間을 접근시켜주는 것일진대 오히려 規律과 엄격함에 人間이 압도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당시의 教會는 人間救援에 오히려 방해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1832년 목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와 결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眞實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自身の 決斷이었다. 둘째 社會의 대부분의 조직이 人間을 억압하고 있었으며, 社會改革者들까지도 편협하고 局部的이었으며, 組織의 힘에 의한 社會改革을 시도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If partiality was one fault of the movement party, the other defect was their reliance on Association.²⁶

또한 組織속에서는 올바른 말을 하지만 個人的으로는 다르게 行動할 때 생기는 矛盾을 예견하였다.

But let there be one man, let there be truth in two men, in ten men, then is concert for the first time possible; When the individual is not individual, but is dual; when his thoughts look one way and his actions another; when his faith is traversed by his habits; when his will enlightened by reason, is warped by his sense; when with one hand he rows and with the other backs water, what concert can be?²⁷

그가 당시의 Transcendentalism 의 실험운동이었던 Brook Farm 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 기인했을 것이다. 즉 그는 個體가 조화롭게 모일 때 좋은 社會가 이루어짐을 알고 個人의 革新만이 가장 근원적인 社會치유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로 그가 정부를 대하는 태도도 같은 論理에서 볼 때 정확할 수 있다. 즉 國家는 個人의 成長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개인은 속내해서는 아니며, 國家가 市民의 地位보다 높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In dealing with the State we ought to remember that its institutions are not aboriginal, though they existed before we were born; that they are not superior to the citizen; that every one of them was once the act of a single man: every law and usage was a man's expedient to meet a particular case; that they all are imitable, all alterable; we may make as good, we may make better.²⁸

따라서 Emerson 에게는 支配力이 직으면 저울수록

좋은 政府이었다. 政府의 치유는 참다운 個人(Individual)만이 할 수 있다고하여 個人의 原初성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ence the less government we have the better—the fewer laws, and the less confided power.

The antidote to this abuse of formal government is the influence of private character, the growth of the Individual;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to supersede the proxy; the appearance of the wise man; of whom the existing government is, it must be owned, but a shabby imitation.²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거부한 社會란 手段화된 잘못된 社會이지 社會 그 자체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새로운 社會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理想主義者와 眞理에 충실한 사람이 항상 그러하듯이 眞實이 통용되지 않는 物質萬能의 社會속에서 지독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勝利를 확신하며 인내할 것을 다짐하였다.

I am Defeated all the time, yet to victory I am born.³⁰

3. 새로운 社會에의 念願

當代의 社會에 만족하지 못했던 Emerson 이 새로운 理想的 社會, 보다 나은 社會를 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다. 그가 個人의 우위성을 강조했다고해서 社會를 부인한 것일 수는 없으며, 社會改革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個人의 우위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몇 비평가, 특히 Stephen Whicher 나 Jonathan Bishop 등이 Emerson 을 論하면서 二元的인 區分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즉 그들은 Emerson 이 1847년과 1848년에 걸친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初期의 freedom 을 강조하는 challenge 단계에서 fate 를 내세우는 acquiescence 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Emerson 에 있어서는 Self 와 Society 는 同時인 문제이지 결코 분리시키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 Emerson 은 초기에는 社會의 거저되고 부패된 慣習에 대항하여 그 비단과 함께 理論의인 武裝을 하는 시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後期에는 새로운 社會 건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行動에 옮긴 實踐의 時期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前期의 Emerson 은 Self 를 Society 에 對立시켰고 後期의 Emerson 은 이 둘을 和解시키고 運命順應의 태도를 취하였다는 주장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merson은 철두철미한 自由主義者이며 Individualist 이었으나 社會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말하는 Self란 社會와의 조화를 인식하고 社會의 改革을 위해 創造的인 활동을 하는 존재이었다. 그러나 이 Self는 時間과 空間의 限界를 초월하여 움직이는 自由로운 존재로서 無限한 發展 可能性을 지녔다. 그렇기에 Here & Now를 그 屬性으로하는 實存主義의 性向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Self는 先例를 따르거나 模倣하지 않고 創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Self를 確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Self-Reliance를 갖게되는 人間이 Scholar이다. 이 學者의 개념은 그의 後期 저작시기에 오면 詩人の 개념으로 轉化되고 있다. 그러나 이 兩者의 共通點인 참된 個人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Self-Reliance를 갖는 참된 人間은 社會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곧 職業意識이다. 그런데 Emerson이 말하는 직업의식은 당시 社會를 지배하고 있던 Calvinism의 召命意識과 二巽을 같이 한다. Emerson의 社會認識은 無政府의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前期에는 對抗的 態度를 취하다가 後期에는 社會順應的 態度를 Emerson이 취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관찰은 매우 皮狀인 것으로 보인다. Emerson은 前期에는 形式의 壓迫이 二人間을 束縛하는 當時의 社會에 反抗하였고, 後期에는 자신이 실감한 理想社會의 건설을 위해 積極적으로 참여, 行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elf-Reliance를 갖는 Scholar는 社會改革운동의 主將이고, Society는 그들이 관동하는 舞臺인 것이다.

그는 當代 美國의 代表者인 知性人으로서 美國이라는 自然은 對象으로서 새로운 思想은 만들어낸 思想家이었으며, 이 美國特有的 思想은 宣布한 詩人의 口로 批評되어왔다. 그는 한쪽이 치우칠 없이 中庸을 지키며 眞理인 充實한 個人主義의 確立者요, 眞正한 人격인 眞理라고 여기진다.

Emerson의 Self-Reliance에 대한 이 研究는 스미치고 無力해질 現代人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는 자기卑下의인 個個人이 모욕사는 社會는 그의 功名에서 위태로운 것이다. 無力한 現代

社會를 구하기 위해서는 個個人이 生氣를 되찾고 人間性이 回復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를 改革하기 위해 個人을 먼저 改革하려했던 Emerson의 論理가 매우 타당성있게 느껴지는 때이다.

〈Notes〉

1. Rod Horton and Herbert Edwards,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3rd edi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p.596.
2. August Derleth, *Emerson Our Contemporary* (London: Crowell-Collier Press, 1970), p.160.
3. Milton Konvitz and Stephen Whicher (eds.), *Emer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2), p.12.
4. Brooks Atkinson, *The Selected Writings of Ralph W.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8), p.718.
5. *Ibid.*, p.721.
6. *Ibid.*, p.6.
7. Sacvan Bercovitch, *The Puritan Origins of the American Self*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5), p.163.
8. Horton and Edwards, *op.cit.*, p.507.
9. *Ibid.*, p.508.
10. Atkinson, *op.cit.*, p.152.
11. *Ibid.*, p.165.
12. *Ibid.*, pp.125~26.
13. *Ibid.*, p.127.
14. *Ibid.*, p.137.
15. *Ibid.*, p.350.
16. Konvitz and Whicher (eds.), *op.cit.*, p.28.
17. Atkinson, *op.cit.*, p.145.
18. *Ibid.*, p.362.
19. *Ibid.*, p.162.
20. *Ibid.*, p.55.
21. *Ibid.*, p.57.
22. *Ibid.*, p.195.
23. Lawrence Buell, *Literary Transcenden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3), p.50.
24. *Ibid.*, pp.51~52.

25. Atkinson, *op. cit.*, p.161.

26. *Ibid.*, p.456.

27. *Ibid.*, p.457.

28. *Ibid.*, p.422.

29. *Ibid.*, p.431.

30. Stephen E. Whicher, *Freedom and Fate*
(New York: A.S. Barnes & Company,
Inc., 1953), p.105.

參 考 文 獻

Text:

Atkinson, Brooks. *The Selected Writings of R.W. Emerson*.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8.

Criticism:

Abrams, M.H.. *Natural Supernaturalism*. New York: W.W.Norton and Company Inc., 1971.

Bercovitch, Sacvan. *The Puritan Origins of the American Self*.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5.

Bishop, Jonathan. *Emerson On the Soul*.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4.

Bloom, Harold. *The Ringers In the Tower*.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1.

Buell, Lawrence. *Literary Transcenden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3.

Chitwood, Oliver Perry. *The United States: From Colony To World Power* 2nd ed.
New York: C. Van Nostrand Company

Inc., 1954.

Derleth, August. *Emerson, Our Contemporary*.
London: Crowell-Collier Press, 1970.

Feidelson, Charles Jr.. *Symbolism and American Literature*. Chicago and London:
Univ. of Chicago Press, 1957.

Feidelson, Charles Jr. and Brodtkorb, Paul Jr.. (eds.) *Interpretations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9.

Lewis, R.W.B.. *The American Ada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5.

Miller, Perry. *The Transcendentalists*.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 Press, 1950.

Rutman, Darrett B.. *American Puritanism*.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1977.

Sealts, Merton M. and Ferguson, Alfred R.. *Emerson's Nature: Origin, Growth, Meaning*. 2nd edition enlarged London and Amsterdam: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9.

Trent, William Peterfield. ed.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Vol. I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17.

Wagenknecht, Edward. *Ralph Waldo Emers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4.

Whicher, Stephen E.. *Freedom and Fate* New York: A.S. Barnes & Company Inc., 1953.